



# 노인의 약물지식정도 및 오남용 실태 조사

Study research on Knowledge of the Level of Medication, Drug abuse and Medication Misuse Among the Elderly

주성현, 황의진, 이주연, 조정희, 이수연, 남한솔, 백설화, 이지영, 김아람, 고유정, 최은주, 하지영, 박경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은 질병치료를 위해서 많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나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물에 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연구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해가는 노인의 약물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약물 오남용의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의 올바른 약물사용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I.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II. 노인의 약물 지식을 파악한다.
- III. 노인의 약물 오남용 행위를 파악한다.
- IV. 노인의 약물지식 정도와 약물 오남용 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지식정도 및 오남용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 연구대상 : 청주소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79명
- 연구도구 : 약물지식은 한정화(2010)가 개발한 도구. 약물 오·남용 행위는 이동연(2001)이 개발한 도구를 한정화(2010)가 수정·보완한 도구
- 연구기간 : 2018.10. 08.~2018. 10.12
- 자료분석방법 : SPSS Win Program Ver.22 빈도, 백분율,  $\chi^2$ -test 분석

## 연구 결과

[표1. 일반적 특성]

문항	범주	n	%	문항	범주	n	%
<b>일반적 특성</b>				<b>건강관련 문항</b>			
성별	남자	26	32.9	건강 상태	매우 좋다	2	2.5
	여자	53	67.1		좋다	16	20.3
	무학	1	1.3		보통	35	44.3
교육 정도	초등중퇴	6	7.6	약간 나쁨	14	17.7	
	초등졸업	13	16.5	아주 나쁨	12	15.2	
	중학중퇴	10	12.7	입원 경험	예	58	73.4
종교	중졸이상	49	62.0	아니오	21	26.6	
	없다	27	34.2	<b>약물관련 문항</b>			
	불교	20	25.3	1-2	31	39.2	
결혼	기독교	17	21.5	3-4	21	26.6	
	천주교	15	19.0	약물 수	5-6	10	12.7
	기혼	42	53.2	7-8	7	8.9	
동거 가족	사별	33	41.8	9-10	4	5.1	
	이혼	2	2.5	11개이상	6	7.6	
	별거	2	2.5	처방약	54	68.4	
가족	1명	30	38.0	약 경로	비처방약	3	3.8
	2명	30	38.0	처방약과 다른 약물 병용	22	27.8	
	3명	7	8.9	1명	42	53.2	
가족	4명	4	5.1	2명이상	36	45.6	
	5명	5	6.3	의사수	모른다	1	1.4
	6명	3	3.8				

[표2. 약물 지식]

번호	질문	n	%
1	증상이 심할 때 같은 약 2회분을 한꺼번에 먹으면 빨리 낫는다.	70	88.6
2	약은 콜라나 주스 등으로 먹어도 괜찮다.	70	88
3	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벽이 보호된다.	58	73.4
4	비처방 진통제 복용은 위에 해로울 수 있다(예: 타이레놀, 게보린 등)	58	73.4
5	허약한 사람은 음식물로 영양을 보충하기 보다는 영양제 복용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55	69.6
6	음주 후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간에 해롭다.	54	68.4
7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53	67.1
8	항생제를 오랫동안 복용해도 인체 내에서 약효의 변화는 없다.	53	67.1
9	같은 약의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난다.	50	63.3
10	약을 복용할 때 제산제를 같이 복용해도 된다.	44	55.7
11	알코올은 혈압약의 효과에 영향을 준다.	40	50.6
12	이뇨제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33	41.8
13	시럽(약물)을 먹고 나서 물을 마셔야 한다.	29	36.7
14	모든 약은 실온(실내온도 21-23°C)에 보관한다.	24	30.4
15	녹여 먹는 약이라도 물과 같이 삼켜도 효과는 같다.	24	30.4

M±SD : 9±2.85

약물지식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으며, 총 15점 만점에 평균 9.02±2.85점이었다. 대상자의 문항별 정답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인 지식 문항은 '증상이 심할 때 같은 약 2회분을 한꺼번에 먹으면 빨리 낫는다.' 88.6%임. 반면,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인 지식 문항은 '녹여 먹는 약이라도 물과 같이 삼켜도 효과는 같다.' 와 '모든 약은 실온에 보관한다.' 가 30.4%로 오답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 약물 오남용]

번호	질문	그렇다		아니다	
		n	%	n	%
1	약사용을 잊고 약 복용을 빠뜨린 적이 있다.	57	72.2	22	27.8
2	증상이 감소하거나 없어져서 용량이나 사용횟수를 줄여 사용한 적이 있다.	44	55.7	35	44.3
3	증상이 없어져서 의사, 약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중단한 적이 있다.	34	43.0	45	57.0
4	사용약물과 부작용에 대해 의사, 약사에게 질문한 적이 없다.	31	39.2	48	60.8
5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약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약사용을 중단한 적이 있다.	22	27.8	45	57.0
6	증상이 심하여 약물의 용량이나 사용횟수를 늘려 사용한 적이 있다.	21	26.6	58	73.4
7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사용한 적이 있다.	20	25.3	59	74.7
8	처방약과 비처방약(약국에서 스스로 구입)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다.	18	22.8	61	77.2
9	약을 아끼기 위해 용량이나 횟수를 줄여 사용한 적이 있다.	13	16.5	65	82.3
10	다른 사람이 준 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	12	15.2	67	84.8
11	처방약과 다른 사람이 준 약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다.	9	11.4	70	88.6
12	처방약, 비처방약, 다른 사람이 준 약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다.	6	7.6	73	92.4
13	약을 복용할 때 술과 담배를 병행한 적이 있다.	6	7.6	73	92.4

M±SD: 3.7±2.7

약물 오남용 행위의 총 점수는 1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 오남용 행위가 높으며 평균은 3.7±2.7점임. 대상자의 약물 오남용 행위에서 '약사용을 잊고 약 복용을 빠뜨린 적이 있다.' 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약을 복용할 때 술과 담배를 병행한 적이 있다.' 가 7.6%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4. 건강 및 약물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지식, 약물 오남용의 차이]

약물지식 항목	구분	입원여부[n(%)]		$\chi^2$	p	
		입원 유	입원 무			
설문5번	예	44(75.9%)	10(47.6%)	5.635	.017	
	아니오	14(24.1%)	11(52.4%)			
약물오남용 항목	구분	약 경로[n(%)]			$\chi^2$	p
		처방약만	비처방약만	두 가지 함께		
설문8번	예	7(13.0%)	2(66.7%)	3(13.6%)	6.420	.040
	아니오	47(87.0%)	1(33.3%)	19(86.4%)		
설문9번	예	3(5.6%)	1(33.3%)	5(22.7%)	6.053	.043
	아니오	51(94.4%)	2(66.7%)	17(77.3%)		

1. 입원경험 유무에 따른 약물 오남용차이에서 '허약한 사람은 음식물로 영양을 보충하기 보다는 영양제 복용으로 보충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chi^2 = 5.64, p=.017$ ).  
2. 약경로에 따른 약물지식의 차이에서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chi^2 = 6.42, p=.040$ ), '약을 아끼기 위해 용량이나 횟수를 줄여 사용한 적이 있다' 는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임( $\chi^2 = 6.05, p=.043$ )

## 논의 및 제언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중졸이상인 노인이 67%로 선행연구(한정화,2010)인 12.7%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이에 따라 약물지식 수준도 9.02±2.85점으로 높은 특성을 보임.
- '녹여 먹는 약이라도 물과 같이 삼켜도 효과는 같다', '모든 약은 실온에 보관한다' 항목에서 30.4%로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여 복용방법과 보관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약물오남용 행위의 연구결과는 앞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한정화,2010)와 비교하였을 때, 약물 오남용 행위가 3.7±2.7점으로 선행연구결과인 4.68±2.05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약사용을 잊고 복용을 빠뜨린 적이 있다'는 항목에서 72.2%가 그렇다고 답하여 정확한 약물 복용을 위한 교육 및 보조 도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입원 유무에 따라 음식보다는 영양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5.64, p=.017$ ),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비처방약을 임의로 투약하거나 감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chi^2 = 6.42, p=.040$ ) ( $\chi^2 = 6.05, p=.043$ ) 정확한 진단 하에 처방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충청북도 일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 수가 적어 전체 노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